

濟州4·3事件時

## 軍·警의 討伐作戰

鄭 錫 均

(전 국방군사연구소 선임연구원)

1. 서 론
2. 4·3사건의 발생과 군·경의 초기토벌작전
3. 제11연대 토벌작전(1948. 5. 15-7. 23)
4. 제9연대의 재편성과 토벌작전(1948. 7. 23-12. 29)
5. 제2연대의 토벌작전(1948. 12. 29-1949. 2. 28)
6.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 작전(1949. 3. 2-5. 15)
7. 해병대사령부 작전(1949. 12. 28-1950. 6. 25)
8. 결 론

### 1. 서 론

「제주4·3사건」은 해방직후 냉전체제하에서 남로당제주도당이 주체가 되어 일으킨 무장폭동이었다. 무장폭도들은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한라산

을 비롯한 각 지역 오름(고지)에 봉화를 올리는 것을 신호로 14개의 경찰 지서를 기습, 파괴하고 경찰과 우익인사 및 그의 가족까지 살상 및 납치하는 등 갖은 만행을 저질렀으며<sup>1)</sup> 아름답고 고요한 섬나라 제주도는 유혈이 낭자한 참극의 현장으로 변해버렸다. 이 사건의 주모자는 남로당(南勞黨) 제주도당 군사부총책 겸 소위 「인민해방군사령관」인 김달삼(金達三)과 이덕구 등 도당 급진세력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치안질서 확립과 폭도소탕에 나섰으나 폭도에 비해 부족한 경찰병력으로는 사태진압이 어려웠으며 육지로부터 응원경찰대가 증원되었다. 그러나 남로당의 선무공작에 현혹된 일부 주민들도 부화내동(附和內同)하여 그 세력이 초기에는 막강하였으므로 경찰의 치안질서확립과 토벌작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미군정청은 1948년 4월 17일 제주 주둔 제9연대로 하여금 공비소탕작전에 임하도록 하였다.<sup>2)</sup> 그 후 제11연대, 재편성된 제9연대, 제2연대 등 5개부대가 차례로 토벌작전에 임하였으며 사건발생 1년여에 걸친 군의 토벌작전으로 대부분의 폭도가 귀순, 또는 소멸되었다. 그러나 치열한 교전상황하에서 일부주민의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나 일부계층에서는 군·경의 진압작전시 주민의 84%<sup>3)</sup> 이상이 희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4·3사건발생 당시 군의 공비토벌작전 개념과 각부대별 작전사항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진위여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장공비들에 의한 군·경의 사상자와 우익인사 및 그들에게 동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주민이 희생되었는지도 추출해냄으로써 4·3사건의 피해가 군·경에 의한 피해뿐만 아니라 무장폭도들에 의해서도 발생되었음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의 식량 및 가축의 약탈, 방목중인 소, 말 등 온갖 축산물이 그들의 보급투쟁의 대상이 되어 제주도를 축산의 불모지로 만든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되어

1) 제주경찰국, 제주경찰사, 1990년, 275쪽.

2) 육군본부, 육군발전사(1권) 1955년, 9쪽.

3) 제주도의회, 4·3피해 조사보고서, 2001년, 61쪽.

야 할 것이다. 그럼 먼저 정부 공간사에 기술된 군의 작전개념과 토벌작전 내용을 부대단위별로 알아보고 군·경에 대항하는 무장폭도들의 세력과 그들의 활동사항을 각종 자료를 통해서 조명해 보기로 한다.

## 2. 4·3사건 발생과 군·경의 초기토벌작전

### (1) 경찰의 초기 대응작전

제주도에서 남로당에 의한 4·3폭동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폭도가 밤에는 마을을 장악하는 혼란상태가 지속되자, 경무부에서는 각도 경찰국에서 1개 중대씩 8개 중대 1,700명의 경찰을 제주도로 급파하여 김태일 경무관과 최치환 총경으로 하여금 이미 파견되어 있던 100여 명의 경찰병력을 통합지휘하여 사태를 수습하게 하였다. 그러나 군·경간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비들은 전투경험이 많은 무장병력으로 구성되어 있어 경찰의 단독적전으로는 많은 희생자만 발생할 뿐 별다른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다.<sup>4)</sup>

4·3사건 발생이후 초기작전에서 폭도들의 활동상황, 즉 그들이 말하는 「인민유격대원들의 투쟁상황」을 해주남조선인민대표자회의(1948. 8. 25)에서 사건주모자 김달삼이가 행한 연설문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는 당시 폭도들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잔인하게 행동했는가를 잘 알 수 있다.<sup>5)</sup>

4) 국방부 전편위 대내정규전사, 1988년, 29-30쪽.

5) NARA RG-242북한노획문서, 「김달삼의 해주 남조선인민대표자 대회 연설문」.

- 전 투: 지서 습격회수 31회, 야외 집전회수 15회 이상, 계 45회 이상
- 숙 청: 경관 100명 이상, 한민당·독립촉성국민회·서북청년단·대동청년단 기타 반동 400명 이상, 계 500명 이상
- 부상: 경관 30명 이상, 반동 40명 이상, 계 70명 이상
- 지서소각: 5개 반
- 지서파괴: 5개
- 투 항: 경관 5명, 반동 2,000명 이상
- 포 로: 30명 이상
- 피검자 탈환: 80명 이상
- 전선절단: 893개소
- 도로파괴: 79개소
- 노 획: 소총·실탄·쌀·의복·철갑·군도·창 등 다수

이와 같이 김달삼이 이끄는 1,500여명의 폭도들은 45회 이상의 지서습격 및 야외전투를 통해 경찰 및 우익단체 570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내고, 각종 시설물을 파괴하였으며, 다수의 무기를 탈취하는 등 제주도 공산화를 목적으로 하는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sup>6)</sup>

이와 같이 초기에 기선을 제압한 공산폭도들은 밤에는 중산간지역은 물론 해안마을까지 내려와 경찰관서를 습격하고 우익인사 및 리장, 마을의 책임자들을 살해하였으며 남로당의 활동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을 반동분자로 처형하거나 산으로 납치해 갔다. 이들은 포고문을 살포하고 유엔협약에 의한 남한의 5·10 재헌의원 총선을 결사반대한다고 천명하였으며 될 때까지 투쟁한다고 하였다.

6) 4·3연구소, 이제사 말해준다, 1989년, 제주야체이카 출신 이은방의 증언, 198쪽.

다음 전단은 1948. 4. 10 인민해방군 제5연대의 포고령이다.

인민해방군 포고령(제5연대)

“우리 인민해방군은 인민의 권리와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고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인민의 나라를 창건하기 위하여 단선단정을 죽음으로써 반대하고 매국적인 극악반동을 완전히 숙청함으로써 UN조선위원단을 국외로 몰아내고 양군을 동시 철퇴시켜 외국의 간섭없는 남북통일의 자주적 민주주의 정권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 투쟁한다.

- 一. 인민해방군의 목적달성에 전적으로 반항하고 또 반항하려는 극악반동분자는 엄벌에 처함
- 一. 인민해방군의 행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매국적인 단선단정을 협력하고 또 극악반동을 협력하는 분자는 반동과 같이 취급함
- 一. 친일파 민족반역 도매의 모략에 빠진 양심적인 경찰관 대청원은 급속히 반성하면 생명과 재산을 절대적으로 보장함
- 一. 전 인민은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인민해방군을 적극 협력하라.

우와 여히 전인민에게 포고함

4281(1948)년 4월 10일

해방지구 안전지대에서  
인민유격대 제5연대



## (2) 국방경비대 제9연대의 창설과 초기토벌작전

미 군정청은 남한국방경비대의 창설을 위한 뱀부계획(Bamboo plan)에 의거 도(道)단위로 연대를 창설하였으며 그 임무는 경찰지원 및 국가비상시 국토를 방어하는 것이었다.

그의 일환으로 제주도에도 제9연대가 모슬포(구 일본군 비행장 막사)에서 창설된 것은 1946년 11월 16일이었으며 초대 연대장에 장창국(張昌國) 부위(副尉, 중위)가 임명되었다. 그 후 이치업 소령을 거쳐 3대 연대장으로 김익열 중령이 부임했다. 그러나 병력의 보유수준은 4·3사건당시 1개 대대규모 밖에 되지 않았다. 그리고 연대장 김익열 중령은 사건 초기단계에서 4·3폭동사건은 경찰과 무장대간의 충돌이므로 상부의 별도명령이 있을 때까지 당분간 중립태세를 유지하면서 관망하는 자세였다. 그러나 경찰의 초기대응작전이 미진해지자 국방경비대 총사령부에서는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는 제9연대의 전투능력이 1개 대대에 불과하였으므로 차후 진압작전에 대비하여 동년 4월 10일 부산에 주둔중인 제5연대 제2대대 선발대를 제주도로 공수(空輸)하여 보내고 주력은 4월 하순 제주도에 도착 제9연대에 배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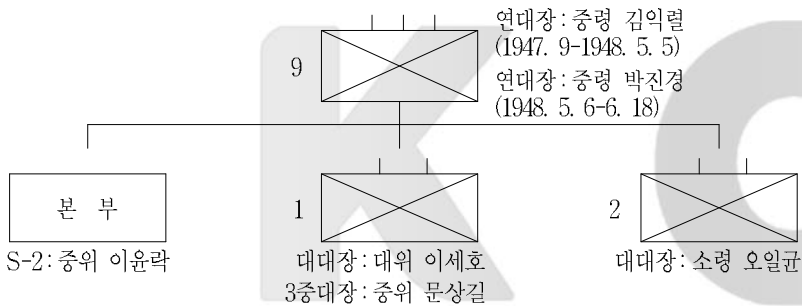
제주도에 도착한 제5연대 제2대대장(오일균 소령, 군영 남로당원)은 대대장병의 훈련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토벌작전을 보류한 채 경찰의 횡포와 서북청년단의 과격한 행동을 비난하면서 주민들의 무장폭도 출현신고가 들어와도 이를 묵살하고 출동하지 않았다. 더구나 오일균 소령은 제9연대 남로당 지하조직책인 문상길 중위 등과 은밀히 회합하고,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총책 김달삼과도 내통하면서 군 내부의 좌익세포조직을 확대해 나갔다. 그런데 경찰의 초기진압작전이 피해만 가중되고 성과가 없는데다가 경비대 마저 방관하는 태도로 보이자 미군정청은 경비대사령부에 제9연대의 진압작전 임무를 1948년 4월 17일부로 부여하였다.<sup>7)</sup>

이렇게 하여 공비토벌임무를 부여받은 제9연대장 김익열 중령은 작전개

념을 제1단계로 폭도와 주민의 분리작전이었으며 제2단계는 분리된 폭도들에 대해 소탕작전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병력을 출동시켜 토벌작전에 임하였으나 폭도를 포착할 수조차 없었다. 그 이유는 연대내의 남로당 조직책임인 오일균 소령과 문상길 중위(중대장)가 조종하는 좌익계 하사관들이 사전에 작전계획을 폭도들에게 누설시켰기 때문이었다. 연대장은 폭도와의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때때로 토벌작전에 투입된 병력을 최초의 계획과는 동떨어진 지역으로 이동시켜 보았다. 이런 경우, 연대는 폭도들과 조우할 때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때마다 폭도들이 먼저 경비대의 접근을 알아차리고 달아나기 일쑤였다. 이리하여 경비대는 폭도와의 접촉을 전혀 이룰 수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제9연대장은 오일균의 계략에 말려들어 폭동주모자 김달삼과 협상을 가지기도 하였으나 협상은 결렬되었다. 이와 같은 폭도들과의 협상사실이 상부에 보고되어 연대장은 그 직위에서 해임되었다. 이때, 오일균은 정체가 드러나지 않은 채 보직만이 변경되었으며, 이에 대한 문책으로 정보장교 이윤락 중위가 파면되었다.<sup>8)</sup>

제9연대 편성표

<1948. 4. 3~5. 15>



7) 육군본부, 육군발전사(제1권), 1955년, 9쪽.

8)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년, 54쪽.

### 3. 제11연대의 토벌작전(1948. 5. 15-7.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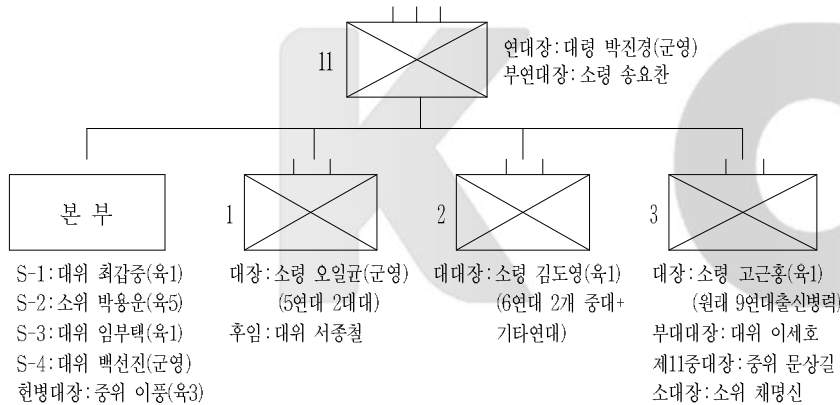
#### (1) 제11연대의 창설과 부대편성

경비대사령부는 제주도내 공비토벌작전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5월 6일 후임연대장에 경비대사령부의 박진경 중령을 임명하였다. 박중령은 일본군 학병출신으로 태평양전쟁 말기 제주도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 일본군이 한라산에 구축한 동굴진지의 구조내용과 지형을 잘 알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경비대사령부는 5월 1일 수원에서 제11연대 본부와 1개 대대를 창설하여 5월 15일 제주도로 이동시켰다. 곧이어 경비대사령부는 제9연대(실병력 1개 대대)와 제5연대 제2대대를 제11연대에 배속함으로써 제11연대를 3개 대대 규모로 대폭 증강하고 박진경 중령으로 하여금 이 연대를 지휘하게 하였다.

제11연대 편성표

<1948. 5. 15>



## (2) 연대장의 작전개념 작전경과

### 1) 초기작전(박진경대령 재임기간: 1948. 5. 15-6. 18)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은 모슬포에 집결되어 있던 연대병력을 대대 및 중대단위로 한림, 성산포에 분산배치하여 경비와 폭도 소탕작전을병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연대의 작전개념은 우선 제1단계로 선무귀순공작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공비와 주민을 분리하여 좌경화된 민심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대 주둔지 단위별로 주민 선무공작에 주력하면서 입산공비들에게는 귀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었다. 제2단계 작전은 폭도들이 이에 불응하고 대항해은 경우 적극적인 소탕작전을 펼치는 것이었다. 제11연대가 계획한 제1단계 작전은 주민자체방위로서 각 부락단위별로 마을 주위에 돌담을 구축하여 방벽을 만들고 자위대를 조직하여 자체경비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제2단계 작전은 본격적인 공비소탕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도 연대내에 깊이 뿌리박고 있던 남로당 세포조직에 의하여 작전계획이 사전에 누설되어, 공비들이 토벌부대를 교묘하게 피하였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결국 이들 남로당 세포조직에 의해 연대장이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박진경 대령이 지휘하는 제11연대가 종래의 제9연대와는 달리 선무공작을 통해 마을을 장악하고 주민들이 돌담 방호벽을 쌓고 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한편 연대장은 저항하는 폭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소탕작전을 실행하였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폭동주모자 김달삼은 연대내 남로당 조직책 문상길 중위에게 연대장을 살해하도록 지령하였다. 이에 따라 문상길 중위는 기회를 엿보다가 1948년 6월 18일 연대장의 진급축하연(대령특진은 6월 1일)이 있던 날 밤에 연회장에서 돌아와 영내에서 취침하고 있던 연대장을 그의 좌익계 하수인을 시켜 살해하였다. 이때 박진경 대령의 나이 29세였다. 이 사건은 군내에 심각한 충격을 주었으며 이를 계기로 군수사기관에서는 군내부에 부식된 좌익분자를

내사하기 시작하였다.

2) 제11연대 후기작전(1948. 6. 18-7. 23)

박진경 대령의 후임으로 제11연대장에 임명된 최경록 중령은 전임연대장의 살해범 체포에 노력을 경주한 끝에 7월 초순 어느 하사관의 투서로 살해범 문상길 일당을 체포하였다. 연대장은 살해범이 체포된 뒤 우선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신교육에 치중하면서 다음과 같은 토벌작전 개념 하에 작전을 진행하였다.

연대장은 우선 공비와 주민을 분리하기 위하여 피난민 수용소를 설치하고 작전으로 인하여 폐허화된 지역의 주민과 공비들에게 가담한 주민을 선무공작을 통해 하산시켜 피난민 수용소에 수용하였다. 그리고 연대장은 공비의 가족에게는 사상선도 계몽을 실시하는 한편 주민과의 접촉을 유지하여 일시적인 과오를 범하였거나 개준의 뜻이 분명한 주민들에게는 재생의 기회를 열어주었다. 연대장의 이러한 조치로 주민들은 하나 둘씩 공비들과 분리되어갔다. 이에 따라 활동 근거지를 잃어버린 공비들은 한라산의 밀림과 동굴속에 은거할 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고 말았다.

공비소탕작전 또한 종전의 경찰위주로 실시되던 작전을 경비대가 주도하는 작전으로 전환시켰다. 즉, 경비대는 공비의 주력이 있는 내륙지역 소탕작전을 담당하고 경찰은 인구가 조밀한 해안지역 경비를 담당하였다. 이처럼 제11연대가 계속해서 적극적인 공비소탕작전을 실시하게 되자, 김달삼은 하는 수 없이 투쟁방향을 장기항전으로 전환시켜 조직을 재정비하고 식량의 자급자족 대책을 강구하면서 그들이 상용하던 습격과 매복을 비롯한 적극적인 유격활동을 일체 중지하기에 이르렀다.

이 무렵, 제2대대장 오일균 소령은 전임 연대장의 살해범이 자기 부하였다는 이유로 대대장을 그만두고 포로수용소를 관리하고 있었다. 그 당시 수용소에 수용된 인원은 대부분이 공비를 따라 입산했다가 하산한 피난민이었으며, 수용소장은 이들을 심사하여 분류하는 것이 주임무였다. 오일균

은 이를 기회로 공비들과 그들의 동조자들은 혐의가 없다고 석방하는가 하면 반대로 무고하고 선량한 주민들을 좌익분자라고 지목하여 수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얼마 가지 못하여 양민의 제보로 백일하에 폭로되어, 오일균과 그의 일당은 남김없이 검거되었으며 사형에 처해졌다.

### 3) 제11연대의 복귀 및 제9연대의 재편성

1948년 7월 24일, 경비대사령부는 본래의 제11연대(연대본부 및 1개 대대)를 수원으로 복귀시키는 대신 제9연대를 재편성하여 이 연대로 하여금 제11연대의 임무를 인수하게 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경무부에서는 타도(他道)에서 증원된 경찰병력 2,000여 명을 7월 18일을 기해 원대복귀시켰다.<sup>9)</sup>

4) 한편 무장공비들도 제11연대의 강력한 공비토벌작전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식량 등 보급품이 품질된 상태에서 남로당 군사부총책 김달삼과 주모자급 일행은 1948년 7월 하순 제주도를 탈출, 월북하여 황해도 해주에서 열렸던 소위 「남조선 인민대표자회의」에 제주도 대표로 참석하여 8월 25일 제주도에서의 인민유격대 투쟁 활동상황을 연설하고 영웅적인 환영을 받았다.<sup>10)</sup> 김달삼의 뒤를 이어 김성규가 군사부총책을 맡게 되었고 인민해방군 기동대장 이덕구가 「인민해방군사령관」으로서 공비들을 지휘하게 되었다.<sup>11)</sup> 그러나 무장폭도 지도부가 월북해버린 제주도의 폭도들은 해안봉쇄로 식량과 무기 등이 보급되지 않고 농가의 식량약탈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북한군 노획문서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년, 58쪽.

10)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는 1948년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해주에서 개최되었는데 제주도 대표로는 안세훈, 김달삼, 강규찬, 이정숙, 고진희, 문동용 등 6명이 참가하였다.

자료: 김봉현, 김민주, 「제주인민들의 4·3무장투쟁사」, 1963년 문우사, 154쪽.

11) 국방부, 상계서, 59쪽.

「제주도 유격전의 최근상태」는 북한로동당 중앙본부조직부 연락과에서 발행한 「정세순보」에 실린 내용으로 북한군 노획문서이다. 이 정세보고서에는 1948년 7월 초의 공비들의 활동상태가 식량 및 물자의 원조가 중단되고 제일동포와 연락두절로 무기와 보급품이 극도로 제한되어 재산공비를 귀순까지 시켰고 빈한한 농가에서 식량약탈을 함으로 공비가 민중으로부터 고립되어가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제주도 유격전의 최근 상태

제주도 인민항쟁은 최근에 극히 곤란상태에 있다. 그 원인은 재산(在山)동지들의 식량결핍문제로서이다. 종전에는 촌락과 또는 일본에 있는 동포들과 10일에 1회씩 연락하여 그곳으로부터 식량 및 물자의 원조를 받던 중 적의 해안선 차단으로 제일동포들과의 연락도 두절되었고 부락과 연락도 두절되어 재산동지들은 식량과 무기의 결핍으로 근간(일자미상)에 5명 동지를 귀순케 하였는데 놈들은 5명 동지를 다 죽여버렸다. 그후 다시 5명을 내려보내어 먼저 동지의 귀순결과와 도민의 여론을 알려고 하였든 바 도민들의 귀순반대로(귀순하면 다 죽인다) 5명의 동지들은 선후책을 토의하다가 적의 습격을 받아 피살, 중상 등을 당하였다. 현재 지도자는 사변전 남로당 간부층도 아닌 것 같다. 외부원조 없이는 섬멸당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도민들의 단결만은 더욱 굳어지고 있다한다. 남로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대책이 적은 모양이 표현되고 있다한다. 실태는 당을 대표하여 제우회에 관계한 송성철에게 방침을 물으니 아무방침도 없다고 한다. 그 외 전남 또는 기타지방에도 약간의 무장대가 있는데 소수로 출몰하여 민간에서 금전 등을 요청하므로 민중도 기분상으로는 동정을 하나 빈한한 농가에 와서 강칭하므로 민중은 그들을 강도단과 같이 보므로 그들 무장대는 민중에게 고립된 형편이라 한다.

자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자료실

북조선 로동당 중앙본부 조직부 연락과 발행 「정세순보(제17호 1948. 7. 15)」(미국립문서보존소, 북한군 노획문서 SHIPPING ADVICE#2006, BOX#14, ITEM#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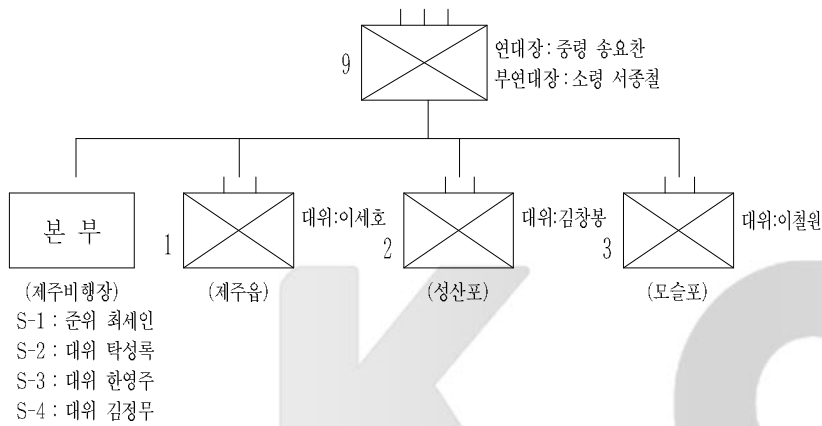


## 4. 제9연대의 재편성과 토벌작전 (1948. 7. 23-12. 29)

### (1) 제9연대의 재편성

경비대사령부는 제11연대가 복귀함에 따라 제5연대의 1개 대대, 제6연대의 1개 대대, 제9연대를 재편성하고 재편성된 연대장에 제11연대 부연대장이던 송요찬중령을 임명하였다.<sup>12)</sup>

제9연대 편성표



12) 육본, 공비연혁, 1971년, 250쪽.

## (2) 작전경과

### 1) 초기작전

재편성된 제9연대의 작전은 미군정이 끝나고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될 무렵부터 시작되었다. 연대장은 8월 한달동안 부대정비와 훈련을 실시하고 9월 초부터 제11연대의 작전개념을 그대로 적용하여 한라산 일대에 은거해 있는 무장공비들에 대한 토벌작전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제9연대는 공비활동에 대한 정보수집이 미흡하여 그들의 근거지를 찾을 수가 없었으며, 토끼몰이식 방법으로 1주일 동안 한라산 일대를 수색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피난한 공비가족과 동조자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토벌부대의 작전행동을 탐지하여 이를 사전에 약정된 신호로 공비들에게 연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대장은 토벌작전이 성과없이 끝난 연후에야 비로소 토벌작전에 앞서 주민과 공비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어 선무공작에 힘쓰게 되었다. 이리하여, 산속에서 농사짓는 주민들을 전부 하산시켜 일단 피난민 수용소에 수용한 다음, 성분을 심사, 분류하여 좌익분자로 판명된 자들에게는 사상전도 계몽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좌익분자들이 전향하면, 그 중에서 설득력이 있는자를 선발하여 그의 동료들에게 선무공작을 펴게 하면서 귀순한 공비들의 신병안전은 물론 생계대책까지 마련해 주었다. 이러한 선무공작이 주효하여 시일이 경과할수록 점차 많은 공비와 공비가족들이 하산하기에 이르러 나중에는 그 수가 수천 명에 달하였다.

### 2) 제주도 경비사령부 설치

1948년 8월 이덕구가 사령관이 된 무장공비들은 한라산 근거지에서 비밀리에 조직과 전투준비를 강화하고 있다가 1948년 10월 1일 소련혁명기념일을 기하여 다시 대규모 폭동을 일으켜 도순 및 오동리에 있는 경찰지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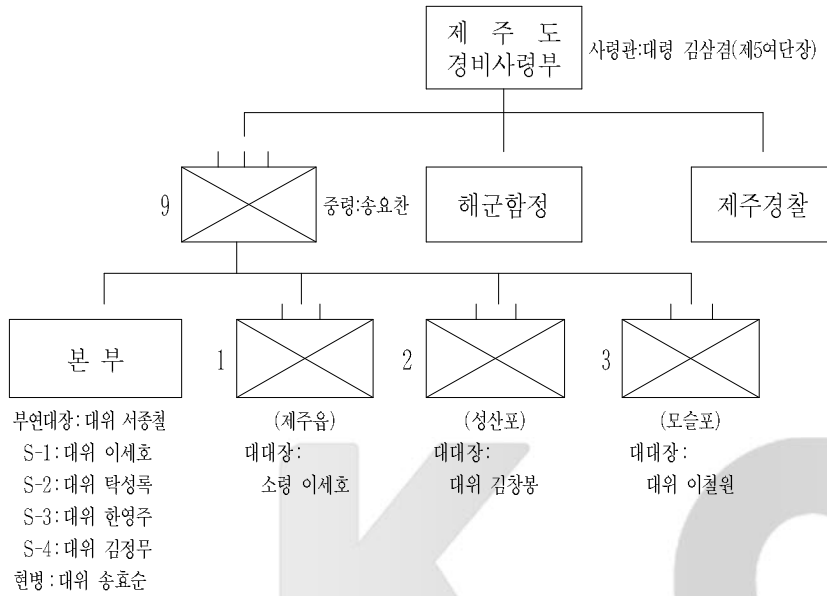
습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제주도 전지역에서 습격, 약탈, 살상 등 각종만행이 자행되어 이날 하루 동안에 350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렇듯 제주도에서 공비의 준동이 재개되고 이로 인한 혼란상태가 계속되자 경비대사령부는 10월 11일 제주도 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제5여단장 김삼겸 대령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제주도경비사령부 편성도

<1948. 10. 11 현재>



제주도경비사령부가 창설되어 작전을 개시한 지 10일만에 제5여단 예하 14연대가, 여·순반란사건을 일으키자, 제주경비사령관은 제5여단장으로서의 문책을 받아 파면되었으며, 제9연대장 송요찬 중령이 그의 후임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제주도 경비사령부의 작전개념은 대대별로 작전책임지역을 할당하여 지역경비와 공비토벌작전을 병행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부대배치는 제1대대가 중앙지역인 제주읍에, 제2대대가 동쪽지역인 성산포에, 제3대대가 서쪽지역인 모슬포에 각각위치하고 중대별로 전술책임지역을 할당하여 경비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공비의 출현 규모에 따라 그때 그때 중대 단독 또는 대대 단위로 작전행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군 내부에 부식된 남로당 세포조직이 남아있어, 이들이 여전히 작전계획을 은밀히 공비들에게 누설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 경비사령부의 공비토벌작전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없었다.

게다가, 공비들은 여·순반란사건에 크게 고무되어 더욱 기세를 올리고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작전의 주도권을 잃은 경비대는 오히려 수세로 몰리게 되어 방어태세를 강화하면서, 예상되는 여·순반란군의 제주도 침투에 대비하여 해군과 합동으로 해안 봉쇄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sup>13)</sup>

**남로당 세포소탕**: 제9연대는 이 작전기간 중 일부병력을 여·순반란군으로서 가장시켜 조천지구에 상륙하게 하여 이에 동조하는 공비일당을 소탕하려는 작전을 계획하였다. 이때 연대는 우연한 기회로 작전계획을 공비들에게 누설시키는 좌익세포 일당을 검거하게 되었다.

이 작전은 제주읍으로부터 동쪽으로 10km 떨어진 조천지구의 공비를 토벌하기 위하여 수립되었으며, 이근양 중위가 지휘하는 제5중대의 일부병력이 해상에서 여·순반란군으로 가장하여 상륙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즉, 제9연대는 정상적인 작전형태로서는 도저히 공비들을 포착할 수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여수의 반란군으로 가장한 국군병력을 제주도에 상륙시켰을 경우 조천 지구의 공비들이 환영과 안내차 출현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고도의 보안조치를 취한 가운데 이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13)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대내정규전사, 1988년, 62-63쪽.

연대장은 이와 같은 극비계획을 경찰국장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수화기를 들었을 때 전화선이 혼선되어 연대 하사관 1명이 공비측세포조 한 명에게 이 작전계획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도청하게 되었다. 연대장은 즉시 관련자와 연대 및 경찰서 교환수를 체포하게 하여 조사한 결과, 이들이 공비들에게 주로 밤늦게 전화로 작전기밀을 누설시켰음이 드러났다.<sup>14)</sup> 이를 계기로, 연대는 이에 관련된 연대내의 좌익세포 80여명을 검거하게 되었다. 그리고 중산간지역 주민이 공비의 보급원이 되고 정보제공처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포고문을 중산간지역주민에게 하달하였다.

### 3) 무허가 통행금지, 제주 송요찬 연대장 포고

문제의 제주도 소요는 그칠 줄을 모르고 잠잠하다가 다시 일어나고 조용하다가도 다시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데 내무부에서는 요즘에는 안정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국군측에서는 또다시 어떠한 적극적인 대책의 필요를 인정하였는지 19일 제주도로부터 들어온 통신은 현지에 있는 보병 제9연대장 송소령의 17일부로 발표된 다음과 같은 포고를 전하여 왔다.

“본도의 치안을 파괴하고 양민의 안주를 위협하여 국권침범을 기도하는 일부 불순분자에 대하여 군은 정부의 최고지령을 봉지(捧持)하여 차등 매국적 행동에 단호 철추를 가하여 본도의 영원한 평화를 유지하며 민족 만대의 영화와 안전의 대업을 수행할 임무를 가지고 군은 극렬자를 철저 숙청코자 하니 도민의 적극적이며 희생적인 협조를 요망하는 바이다. 군은 한라산 일대에 잠복하여 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는 매국 극렬분자를 소탕하기 위하여 10월 20일 이후 군 행동 종료기간 중 전도 해안선부터 5km 이의 지점 및 산악지대의 무허가 통행금지를 포고함. 만일 이 포고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그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폭도베로 인정하여 총살에 처할 것임. 단 특수한 용무로 산악지대 통행을 필요로 하는 자는 그 청원에 의하여 군 발행 특별통행증을 교부하여 그 안전을 보증함.

14)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공비연혁, 1971년, 보진제, 252쪽.

포고령 원문<sup>15)</sup>

○ 1948年 10月 17日字의 宋堯讚 第9聯隊長의 布告文

本道の 治安을 파괴하고 良民의 安주를 위협하여 國權侵犯을 기도하는 일부 不純分子에 대하여 軍은 政府의 最高指令을 捧持하여 此等 賣國의 행동에 단호 鐵槌를 가하여 本道の 영원한 平和를 유지하며 民族萬代의 榮華와 安진의 大業을 수행할 임무를 가지고 軍은 極烈分子를 철저 肅清코저 하니, 道民의 積極적이며 희생적인 협조를 요망하는 바이다. 軍은 漢拿 山일대에 잠복하여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하는 賣國의 極烈分子를 掃蕩하기 위하여 10月 20日 이후 軍行動종료기간중 全道 海岸線부터 5킬로이외의 地點 및 山岳地帶의 無許可通行禁止를 포고함. 만일 此 布告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그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暴徒輩로 인정하여 銃殺에 處할 것임. 단 특수한 용무로 山岳地帶 通行을 필요로 하는 자는 그 請願에 의하여 軍발행 特別通行證을 교부하여 그 安全을 保證함.

**주요지역 작전:** 제주도경비사령부는 1948년 10월 30일 제주읍을 기습하기 위해 제주 서쪽 10km 지점의 고성에 집결중인 공비를 군·경 합동작전으로 격멸하고 200여 명을 생포하였다. 11월 2일에는 한림에 주둔하고 있던 제2대대 제6중대가 수 미상의 공비로부터 습격을 받아 교전하던 중, 이들의 유인에 빠져들어 중대장 이하 14명이 전사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그 직후 연대는 제5중대를 출동시켜 공비들의 집결지를 포위, 공격한 끝에 공비 100여 명을 사살하는 큰 전과를 올렸다.

11월 3일, 경찰토벌대는 남제주군 중문면 어두운마루에서 매복하고 있던 공비와 교전하여 3명을 사살한 반면, 경찰관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민가 30여 채가 불에 탔다. 또한 11월 6일과 7일 사이에는 공비들이 서귀포를 점령하고 기도하였으나, 군·경은 즉시 이를 저지하였으며, 11월 7일에는 남로당내에 침투한 첩보요원의 제보로 제주도 적화음모를 사전에 탐지하여 그들의 지하조직을 일망타진하였다. 12월 28일에는 공비 100여 명이 남제주군 남월면 위미리마을을 습격하여 월동을 위한 식량과 의류를 약탈하고 마을 전체를 불태운 뒤 도주하였으며, 이 급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토벌대는 도주하는 공비 76명을 생포하고 7명을 사살하였다.

이와 같은 제9연대와 경찰의 효율적인 토벌작전에도 불구하고 공비들의

15) 신상준 제주4·3사건(하), 2002년 618쪽. 1948. 10. 20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활동은 끈질기게 계속되었다.

이에 육군본부는 1948년 12월 29일에 제주도 지역 향토방위를 위해 1946년 11월 6일 모슬포에서 창설된 제9연대를 대전에 주둔한 제2연대와 임무 교대시켰다.<sup>16)</sup>

다음은 제9연대 작전기간 중 선포되었던 계엄령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다.

제주도지구 계엄선포에 관한 건(대통령령 제31호)

제주도의 반란을 급속히 진정하기 위하여 동 지구를 합위지경(合圍地境)으로 정하고 본령(本令) 공포일로부터 계엄을 시행할 것을 선포한다. 계엄사령관은 제주도 육군 제9연대장으로 한다.<sup>17)</sup>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한 제주도지구 계엄선포에 관한 건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승만(李承晩)

단기 4281년 11월 17일

국무위원 국무총리 겸 국방부장관 이범석(李範奭)

국무위원 내무부장관 윤치영(尹致暎)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장택상(張澤相)

국무위원 재무부장관 김도연(金度演)

국무위원 법무부장관 이 인(李 仁)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안호상(安浩相)

국무위원 농림부장관 조봉암(曹奉岩)

국무위원 상공부장관 임영신(任永信)

국무위원 사회부장관 진진한(錢鎭漢)

국무위원 교통부장관 허 정(許 政)

국무위원 체신부장관 윤석구(尹錫龜)

국무위원 이윤영(李允榮)

16)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공비연혁, 1971년, 보진제, 253쪽.

17) 관보 제14호(1948. 11. 17).

제주도지구 계엄령선포 관련 관보 및 원문

관보 제14호 1948년 11월 17일

( 5 ) 第十四號

官 報

號紀4281年11月17日(水曜日)

<p>第十二號 減俸의 境遇 公務員法 第 條 第 項 第 號에 依하여 個月間俸給의 分之二를 減俸함 權記 印 年 月 日 任命權者 任命權者</p>	<p>第十三號誓式 年功加俸을 給與하는 境遇 權記 印 年 月 日 任命權者 任命權者</p>	<p>第十四號誓式 年功加俸을 給與하는 境遇 右는 勤務成績이 顯著함으로 이를 賞與함 權記 印 年 月 日 任命權者 任命權者</p>	<p>第十五號誓式 職名 姓 名 權記 印 年 月 日 任命權者 任命權者</p>
---	--	--	---

<p>備考 가, 無給職인 境遇에 是手當을 記入 치 않는다. 나, 現職에 在職中에 있는 者를 囑託하 는 境遇에 限하여 職名을 囑託한다 다, 一時手當을 給與하는 手當 을 給與하여 記入한다. 라, 第一號誓式의 備考와 同一함 第十六號誓式 囑託을 解任하는 境遇 願에 依하여 某事務를 囑託함 事務形便에 依하여 某事務를 解任함 事務專了에 依하여 某事務를 解任함 權記 印 年 月 日 任命權者 任命權者</p>	<p>備考 가, 他에 官職을 가진 者를 囑託에 任命 하였을 境遇에 限하여 是姓名우에 職 名을 冠起하여 囑託을 記入하지 않 는다. 나, 第一號誓式의 備考와 同一함 國務會議의 議決을 거쳐서 制定한 濟州道 地區戒嚴을 宣布한 關係件을 以下에 公布한다 大統領 李承晚 閣 權記 四十二年十一月十七日 國務委員 國務總理 李 範 奭 國務委員 國防部長官 李 範 奭 國務委員 內務部長官 尹 致 暎 國務委員 外務部長官 張 澤 相 國務委員 財務部長官 金 度 澤 國務委員 法務部長官 李 演 相 國務委員 文敎部長官 曹 浩 相 國務委員 農林部長官 曹 奉 岩 國務委員 工商部長官 任 永 信</p>
---	---

國務委員 社會部長官 錢 鎰 漢  
國務委員 交通部長官 許 錫 政  
國務委員 選信部長官 尹 錫 龜  
國務委員 李 允 榮  
大統領令第三十號  
濟州道地區戒嚴을 宣布한 關係件  
濟州道의 戒嚴을 急速히 鎮定하기 爲하여  
同地區에 合圍地境으로 定하고 本令을 公布  
日로부터 戒嚴을 施行할 是을 宣布한다  
戒嚴司令官은 濟州道駐屯陸軍第九聯隊  
長으로 한다

大統領令 第31號(원본)

大統領令 第三十號  
大統領 李承晚 閣  
國務總理 李 範 奭  
國務委員 尹 致 暎  
國務委員 張 澤 相  
國務委員 金 度 澤  
國務委員 李 演 相  
國務委員 曹 浩 相  
國務委員 曹 奉 岩  
國務委員 任 永 信  
國務委員 錢 鎰 漢  
國務委員 許 錫 政  
國務委員 尹 錫 龜  
國務委員 李 允 榮

1948년 11월 17일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령.

대통령과 국무위원 전원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이 문서는 1948년 11월 17일자로 계엄을 선포함을 명시하고 있다.

앞의 자료(제주도지구 계엄령선포 관련 관보 및 원문 참조)는 당시 관보 제14호 원본과 국무회의의결내용 원본을 사본한 것이다.

## 5. 제2연대의 토벌작전(1948. 12. 29-1949. 2. 28)

### (1) 개 요

육군본부는 1948년 12월 29일 제주도지구 황토방위를 위해 편성한 제9연대를 대전에 주둔하고 있던 제2연대와 임무를 인계하도록 하였다.<sup>18)</sup> 제2연대는 대전에서 제주도로 이동하여 제9연대(재편)로부터 제주도지역 공비토벌 임무를 인수하였다. 연대장은 연대본부를 제주비행장에 위치시키고 제1대대를 남쪽 서귀포에, 제3대대를 북쪽 오동리에, 제2대대를 연대예비로 제주읍에 각각 배치하여 필요시 신속히 증원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다.

이 무렵 계속적으로 전개한 공비소탕작전으로 상당수의 병력이 귀순하거나 사살하여 표면적인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 공비들은 이덕구의 지휘아래 한라산 밀림지대에 거점을 두고 준동하고 있었으나 이들의 병력은 소수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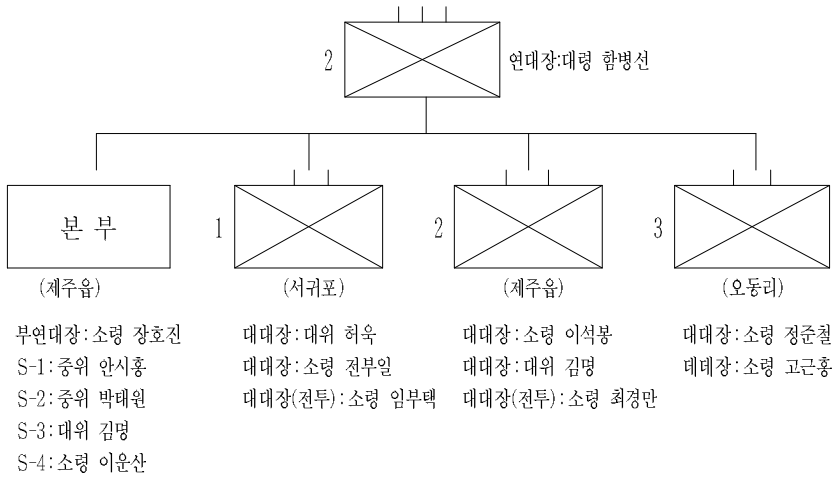
정부는 이와 같은 정황을 감안하여 제주도 발령했던 계엄령을 1948. 12. 31부로 해제하였다.<sup>19)</sup> 그러나 제주도 내의 공비병력은 1개 대대 규모나 되었으며 이들은 암암리에 조직을 강화하고 있었다.

18) 국방부 상계서, 64쪽.

19) 대통령령 제43호(1948. 12. 31), 국방부전편위. 대비정규전사, 1988년, 65쪽.

(2) 제2연대의 편성

<1948. 12. 29>



※ 부대편성표에 대대장을 2~3명으로 기록한 것은 선, 후임 관계도 있으며 행정대대장, 전투대대장으로 동시에 2명씩 보직될 때가 있었다. 또한 보직 기간이 명확치 않아 최초 보임된 인원을 기술하였다.

(3) 작전경과

1) 초기작전

제2연대가 제주도에 도착한지 3일 후에 기습을 받을 정도로 공비의 활동은 과감하게 기습을 장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제2연대가 간신히 이삿짐을 풀고 지형도 미숙한 상태에 있던 시기인 1949년 1월 1일 제주읍 남쪽 한라산 기슭의 오동리 화엄사에 주둔하고 있던 제3대대가 공비두목(인민해방군 사령관) 이덕구가 지휘하는 공비주력에 의해 포위되었다. 공비들은 부대주둔지를 포위하고 기습적인 선제공격을 가

하였다. 더욱이 이날 새벽에는 진눈깨비가 내리는 어두운 시도조건이어서 공비들이 기습행동을 하기에 매우 좋은 날씨였다.

제3대대는 기습을 받은 초기에는 당황하였으나 즉각 전투태세를 갖추고 1시간여에 걸친 교전 끝에 공비의 기습공격을 격퇴하였다. 이 화염사 전투에서 공비들은 10여구의 시체를 산중에 유기한채 도주하였으며 제3대대는 7명이 전사하였다.<sup>20)</sup>

제2연대장은 제3대대를 기습한 공비의 규모를 1개 대대로 판단하고 이들을 섬멸하기 위하여 1월 4일부터 해군함정과 항공대의 경비행기를 지원받아 합동작전을 전개하였다. 이 작전에서 연대장은 각 대대로 하여금 한라산을 포위하여 지역수색을 전개하게 하였으나, 한라산에 대한 지형미숙으로 공비의 은거지 색출은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 2) 선무공작으로 주민과 공비의 분리작전

제2연대장 함병선 대령은 작전을 지휘하면서 주민들이 한라산일대의 동굴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공비소탕작전보다도 선무공작을 통하여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였다.

4·3사건이 발생한 후 군·경이 계속적으로 펼친 공비토벌작전으로 인하여 해안에서 한라산쪽으로 4~8km 이내의 마을을 제외한 산림지역에 산재한 대부분의 부락은 폐허가 되어버렸다. 이 때문에 주거지를 잃은 주민들은 공비를 따라 산중으로 들어가 굶주림과 불안 속에서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토벌부대의 선무공작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산에서 내려와 정착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주민들은 산속에 남아 있었다. 제2연대는 이들 주민들을 공비와 분리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갱생원(피난민 집단수용소)을 설치하고 적극적인 주민 선무활동을 전개한 결과 산에서 내려온 주민이 1,500명에 달하였다. 연대는 이들을 갱생원에 수용하

20) 육군본부, 공비연혁, 1971년, 253쪽.

여 구호물자를 배급하는 한편 포로가 된 공비들도 처형하지 않고 사상계몽을 통하여 선량한 국민으로 갱생시켰으며, 양민으로 인정된 자는 전원을 귀향조치하였다.

이 밖에도, 제2연대는 주민홍보를 위하여 제주읍, 모슬포, 성산포, 한림 등의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하여 면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서 연대는 공비들의 만행을 규탄하고, 새로 도입된 대전차포, 박격포, 중기관총, 로켓포, 소총 등의 신예무기를 전시함으로써 공비의 가족들로 하여금 이들 무기에 의한 토벌이 전개되기 전에 하루빨리 연락을 취하여 귀순시킬 수 있도록 촉구하였다. 또한, 제2연대는 엄정한 군기를 확립하고 장병들로 하여금 대민봉사의 따뜻한 마음가짐으로 주민을 대하도록 강조하면서, 귀순한 주민들에게는 구호물자를 배급하는 등 온정어린 선무공작을 꾸준히 전개하자, 차차 주민들은 국군을 신뢰하게 되었다. 제2연대장의 민심수습대책이 주효하여 군부대를 믿고 의지하게 되자, 산중에 남아있던 피난민들도 공비군들이 군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줄을 이어 하산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무장공비들의 귀순도 점차로 늘어나, 공비의 세력은 크게 약화되어 갔다.

그 후, 제2연대는 남은 공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1949년 1월 31일 남제주군 남원면 의귀리에서 공비 3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세우는 등 효율적인 작전을 전개하였으며 해군과 항공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며 2월말까지 토벌작전을 계속하였다.

제2연대 작전간 공비들이 살포한 전단에는 소련과 북한 김일성의 신년사를 수록하는 등 공산통일을 부추기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그럼 공비의 전단을 알아본다.

또한 공비들이 마을 주변에 매복하여 군용차량을 2회나 습격하였던 지역을 소개한다.

이 문서는 4·3폭동 당시인 1949년 1월 북제주군 구좌읍 일대에 뿌려졌던 남로당 구좌면 투쟁위원회 명의로 된 전단이다.

이 포고문에는 소련을 찬양하고 북한의 김일성수상을 신뢰하며 1949년 1월 1일 신년사 내용에 노동법, 남녀평등법, 토지무상분배법 등이 남한에서도 곧 시행된다고 허위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

이 전단만 보더라도 4·3의 궁극적 투쟁목표는 공산통일이며 1차 목표는 제주도의 공산화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 주(註)

<면민에게 호소함>

원수들의 잔인한 포화속에서도 인민의 이름으로 용감히 싸우는 3만 면민 여러분!

인류해방의 은인이며 평화의 보장자며 우리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백방으로 원조하는 소련군은 조선의 완전독립과 영원한 번영을 기약하면서 1948년 12월 26일 완전철수 하였다. 이에, 조국의 자유와 통일을 가로막는 38선은 그 국제적 합법성이 상실되었고 위 미제국주의와 이승만 매국단정이 꺾히는 국토 양단과 남조선 시민화 정책을 근본적으로 깨뜨려 집에 따라 조국해방의 역사적 관문을 우렁차게 열려졌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소련군이 철수해서 가져오게 된 것이다. 더욱이 3천만 인민이 피어린투쟁의 결과며 허다한 순국전사의 피물은 기록위에 심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친애하는 면민 여러분!

빛나는 오늘을 맞이하기에 조국의 초석된 우리들의 형제는 얼마나 되며 구국전선에 흘린피는 얼마나이며 고통과 쓰라림은 얼마나 심하였습니까?

그러나 최후발악을 마음대로 하는 원수들은 우리 인민군이 과감한 공격과 전인민이 판결앞에 꼬리를 감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저... 애월면 노랑개 섬멸작전, 노랑개 30여명을 무찌른 죽성작전

지난 6월 노랑개 50여명을 처단한 월평작전을 아십니까? 원수들을 처부술날은 멀지 않았습니니다. 3천만 인민은 수년동안 다열한 포화속에서 단련되었으며, 우리 인민군은 오랜전투에서 정예화되고 적을 완전히 섬멸시킬 만반의 준비와 결의가 확고해 졌습니니다.

친애하는 면민 여러분!

38선은 깨뜨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꼭 깨뜨리고야 말것입니다. 이제야 우리를 가로막을 아무런 제약도 없습니니다. 오직 우리 삼천만 민족이 실력에 의해서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는 목전에 닥쳐왔습니다. 조국해방의 결정적인 계기인 1월 1일을 기하여 전민족은 총력기 하였습니다. 그뿐더러 믿음직 하게도 김일성 수상은 1949년 1월 1일 신년백두에 성명하기를 멀지 않은 장래에 남반부 동포들에게도 노당자에 노동법령 농민에게 토지개혁 여성에게 남·녀 평등권등 제반과업을 실시케 될것이며 미제를 철수시키고 매국단정을 타도하기에 인민군은 저력을 다할 것이라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김일성 수상 성명서가 구체화 될 날도 시간문제이며 인민군이 원수를 섬멸시킬 날도 가까워졌습니다.

친애하는 면민 여러분!

반동의 토막 선전에 속지 맙시다.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결정적 전투에 더욱 용감합시다. 가까운 승리를 확신하고 적이 탄압과 꼬임을 박차내며 승리의 날까지 싸우자! 본 투쟁 위원회는 언제나 삼만 인민의 곁에 있으며 삼만인민의 자유를 위하여 사력을 다할 것을 굳게 약속하는 바입니다. 삼만 면민이여... 우리들의 정의의 포고에 따라 원수를 물리치려 같이 쫓기합시다.

- 一. 인민군 승리 만세
- 一. 민족주의 조국통일 진취만세

1949년 1월 13일  
구좌면 투쟁위원회





1949년 1월 19일 조천면 북촌리(北村里) 주민집단피해사건의 원인이 된 무장 공비 매복지역. 국군 3명이 탑승한 군차량을 마을 남서쪽 이곳에서 기습, 국군 3명이 전사하였음<sup>21)</sup>



1948년 11월 18일 공비들이 매복하여 군용트럭을 공격, 국군을 살해한 매복장소(북촌리마을 동쪽 소나무밭)<sup>22)</sup>

- 21) 출동한 국군은 사건당시 공비두목이 북촌리 사람이며 마을사람들이 공비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흔적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좌익측(추정) 주민이 집단피해를 보았다(증인자: 북촌리 노인회장, 2002. 10. 24). 그 후 이 부락은 동년 2월 15일 공비의 기습을 받고 청장년(우익측(추정)) 학살되고 남치혜 갔다(제주경찰사, 315쪽).
- 22) 자료: 미육군사령부 주간정보 요약(48. 11. 26). 이런 사건이 있은 후 2개월후에 북촌리에서 공비의 습격이 또 발생하였다. 북촌리 노인회장 증언, 2002. 10. 24.



북촌리 마을 돌성(城) : 부락 외곽에서 마을주민들이 돌을 쌓아 만든 돌방벽의 일종. 마을별로 민보단을 편성, 주야간 공비의 마을침투를 방어하고 군·경부대에 연락하였음. 이 사진은 북촌리 마을 남쪽에 아직도 남아 있는 돌성이다.<sup>23)</sup>

## 6.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 작전(1949. 3. 2-5. 15)

### (1) 개 요

1949년 2월, 제2연대장은 제주도내의 잔여 무장공비는 약 300여 명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제9연대와 임무를 교대한 후 지형파악도 하기 전에 기습을 받았던 제2연대는 1949년 1월과 2월에 걸쳐 선무공작으로 많은 주민이 하산하고 잔여공비에 대해 소탕작전을 실시했으나 이들은 계속해서 군·경의 무기를 탈취하여 경비가 소홀한 부락을 습격하는가 하면 동네에 들어와 마을 청년들을 한라산의 비밀야지트로 끌고가 훈련을 시켜 공비로 양성하

23) 증언자 : 북촌리 노인회장, 2002. 10.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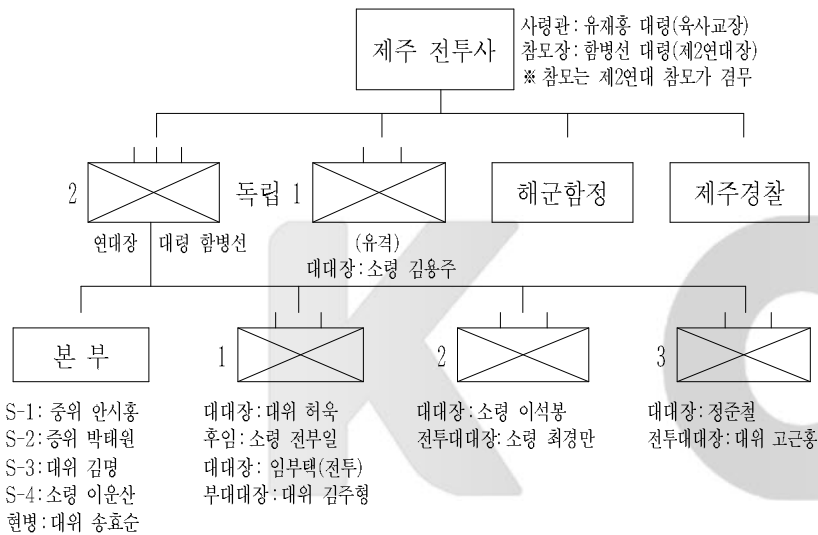
고 있었다.

## (2)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 설치

육군본부는 조금 더 지나면 초목이 무성한 녹음이 되면 한라산지구의 공비토벌작전이 곤란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 지역내 공비를 해동과 동시에 격멸하기 위하여 3월 2일에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를 설치하였다. 전투사령관에는 유재홍대령을 임명하였으며, 제2연대장 함병선 대령이 참모장을 겸임하도록 조치하였다.

한편, 대유격전 전담부대인 독립제1대대(대대장 김용주소령)를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에 배속하였다.<sup>24)</sup>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 편성표



24) 육군본부, 공비연혁, 1971년, 255쪽.

### (3) 작전경과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는 먼저 선무공작을 전개하여 공비와 주민을 분리시키고 그 후에 토벌작전을 실시한다는 작전개념에 의거하여 작전을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른 제1단계 작전인 선무심리전은 제2연대가 펼친 내용을 약간 보완한 것이었다.

전투사령관은 도내의 지도급 청년들로 선무공작대를 편성하여 산중에 들어가 아직도 하산하지 않고 있는 일부 주민들을 설득하여 하산시키도록 유도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용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제주도청의 협조 하에 구호미, 의류품들을 분배하였으며, 생활자금도 2배로 증가하여 지급해 주었다. 그리고, 하산한 주민들에게는 그들의 친척중에 공비가 있으면 귀순하도록 종용하는가 하면, 경비행기를 이용하여 귀순전단을 살포하는 등 적극적인 선무공작을 전개한 결과 귀순자가 많이 늘어났다.

제2단계 작전은 공비 근거지에 대한 토벌작전으로서, 제2연대를 주축으로 한 군 작전부대로 하여금 한라산 지역의 공비를 토벌하게 하였다. 전투사령부는 각 대대별로 작전지역을 할당하여 책임지역 내에서 공비가 출현하면 각 대대가 그 규모에 따라 중대, 대대별로 소탕작전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해군함정과 경비행기로 근접지원을 제공하였다.<sup>25)</sup>

한편, 해안지역의 부락경비를 담당한 경찰은 마을마다 15~16세의 주민들로 민보단을 편성하여 낮에는 농민을 보호하고 밤에는 공비의 습격으로부터 마을을 방위하게 하였다.

#### 1) 민·관·군 혼성부대 편성 및 운용

유재홍 제주도지구전투사령관은 효율적인 작전임무수행을 위한 민·관·

25)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대미정규전사, 1988년, 68쪽.

군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성, 이를 최대로 이용하기로 계획하였다. 즉 민보단 1개 소대(25명)와 경찰 1개 분대, 군인 1개 분대로 구성된 민·관·군 혼성부대를 편성하였다. 이 민보단소대는 도내 국민학교 및 중학교 교사, 면사무소와 군청 직원, 청년단 간부들을 대상으로 1개월간에 걸쳐 기초 군사훈련을 실시한 다음, 필요시 소집하여 소탕작전에 참여시켰다.

이들 혼성부대는 공비들에게 매우 위협적인 부대가 되었다. 그중에서도 제2연대 제1대대의 정수정 상사가 지휘하는 혼성부대는 공비의 아지트를 찾아내어 남녀 30여 명을 생포하고 총기와 일본도 등 다수의 무기를 노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 상사는 생포한 자 중에서 공비의 세포책인 “고”모를 전향시켜 공비두목 이덕구와 김민성(남로당 제주도 군사부조직책)의 아지트를 알아내고, 지체없이 급습하여 김민성을 포함한 간부 일당을 사살하고 경기관총과 자동소총을 포함하여 수십 정에 달하는 총기를 노획하였다. 그러나, 공비두목 이덕구는 때마침 일부공비병력을 이끌고 출동한 다음이어서 그를 생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sup>26)</sup>

## 2) 무장공비 병기창 기습 및 이덕구 사살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총책임자 「인민해방군사령관」이었던 김달삼(金達三, 본명 李承晉)이 지난해 8월 제주도를 빠져나가 월북하였고 남로당 제주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용관은 토벌부대와 교전 끝에 1949년 4월 20일에 사살되었다. 소위 「인민해방군사령관」 이덕구는 이와 같이 무장폭도의 수괴급들이 섬에서 도주하여 월북하거나 일본으로 빠져나갔고 교전중 사망자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전력에 많은 차질을 가져옴에 따라 그는 그의 심복부하들과 같이 동분서주하면서 피신하기에 급급하였다.

그뿐 아니라, 그들 대열에서 이탈하여 군·경에게 귀순하는 자들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비밀 아지트에 은닉된 다량의 무기가 군·경에게 피탈당

26) 육군본부 공비연혁, 1971년, 255쪽.

하게 되었다. 특히, 한라산 서북쪽 6km 지점의 어승생악에 위치한 그들의 비밀 병기창을 발각당해 소총 370정과 실탄 수천발을 군·경에게 빼앗기고는 무력투쟁을 더 이상 계속하기 곤란한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렇게 궁지에 몰리자, 이덕구는 육지로 탈출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1949년 4월 하순 그는 토벌대에 의해 사살되었다.

이렇게 되자, 공비의 활동은 김달삼 도주 후 군사부총책이 된 제9연대 탈주병 김성규와 이덕구의 후임인 김의봉을 주축으로 한 약100여 명으로 감소되어 지하에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데 안간힘을 다하는 형세에 놓이게 되었다.<sup>27)</sup>

#### (4)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 해체 및 제2연대 복귀

육군본부의 제주도의 공비조직이 거의 와해되어 제기불능상태에 이르자 1949년 5월 18일부로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를 해체하였다.

그리고 5월 20일에는 5개월간의 토벌작전중 전사한 토벌부대요원 119명의 위령제를 제주읍에서 거행하였다.<sup>28)</sup>

한편 제주도민은 제2연대의 공적을 찬양하고 이를 오래도록 기리기 위하여 서귀포에 함병선대령의 공덕비를 건립하였다. 또한 7월 7일에는 제주도민의 이름으로 한라산 정상에 평정비를 건립하였다.

제2연대는 8월 13일 제주도경비임무를 독립제1대대(대대장 소령 김용주)에 인계하고 인천으로 이동하였다.

다음은 이승만대통령이 국방부장관 신성모와 같이 제주도에 왔을 때 대통령지시에 의거 귀순하는 모든 주민과 공비는 모두 그 생명을 보장하니 귀순하라는 당시의 전단이다. 이 전단에는 작전부대가 산에 있는 주민과 공비를 적대시하지 않고 양민으로 간주, 도민전체가 화합하여 제주도에 평

27)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년, 70쪽.

28) 육군본부, 공비연혁, 1971년, 256쪽.

화를 정착하자는 내용이다.

산에 있는 동포들에게 고함<sup>29)</sup>

※ 후첨 : 원본내용 수정없이 기술

- 상금(尙今) 귀순하지 못하고 있는 무장, 비무장 동포들이여 그대들이 근 1년동안이나 사랑하는 가족과 정든 부락을 떠나서 눈비오는 산중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은 다만 그대들의 지식이 부족한 연고로 잔악무도한 1~2명의 공산주의자에 속았든 까달기다 생각해보라. 그대들과 우리는 다 같은 단군시조의 자손이 아닌가? 반만년동안 같은 운명아래 살아온 정을 금치 못하시는 대통령각하의 명령을 받으려 본의아닌 반항을 하고있는 그대들을 다시한번 부른다.
- 군·경의 공동작전은 철통의 진을 펴고 포위 소탕전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으니 그대들의 운명은 군·경의 총검아래 있으며 실로 시간문제인 것이다.
- 그러나 인자하신 대통령각하께서는 그대들의 어리석은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부인동반 래도하시, 국방부장관을 불러 지금이라도 귀순하는 동포에 대해서는 그 생명을 보장하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 산에 있는 동포들이여 지금이라도 늦지않다. 오늘까지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속히 돌아오라, 귀순하라! 그대들이 그대들의 죄수를 붙잡아 오면 그것은 30만도민에게 큰 혜택이 될 뿐만아니라 그대들은 큰상을 받을 것이다. 동포들이여!

그대들도 중천에 높이 솟아 종알거리는 종달새의 소리를 들을 터이지! 평화와 이상을 추구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본관은 무한이 평화가 그리워지며 그대들의 불쌍한 신상에 낙루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다시 권고하노니 속히 귀순하라! 그리하여 도민전체가 한데 뭉쳐서 이 섬에 평화를 회복하고 우리 자손으로 하여금 만대에 행복을 누릴수 있는 새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총진군하자!

단기4282(서기 1949년)년 4월 9일  
국 방 부 장 관 신 성 모

---

29) 제2연대제주도주군기, 1949년 8월 작성.



이들 공비는 이덕구의 후임으로 제9연대에서 탈주한 고성구, 김성규가 맡아 지휘하고 있었다. 이들의 화기는 M-1 소총, 99식소총, 칼빈소총이었으며, 무장공비 1명에 비무장공비 2명으로 조를 편성하여 행동하였고 탄약은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

한라산의 동굴진지는 공비들의 최후 근거지로서 야전병원까지 갖추어져 있었다. 공비들은 한라산 중턱을 연하는 순환도로(일명, 하지마계(머리띠)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동·서·남·북에 4개 문(위병소)을 만들어 놓고 도처에서 준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병력을 보충하기 위한 대책으로 양민을 납치하고, 경찰관서를 습격하여 무기·탄약을 탈취하였으며, 마을을 급습하여 약탈·방화를 하는 등 치안질서를 교란하고 협박과 감언이설로 민심을 동요시켰다.<sup>30)</sup>

## 2) 해병대의 제주도 배치

해군본부는 1949년 12월 26일 진주에 주둔하면서 4개월간 공비 소탕작전을 펴고 있던 해병대사령부(사령관:신현준 대령)를 육군과의 협조하에 제주도로 이동시켰다. 이 무렵 제주도에는 1949년 8월 13일부터 육군 독립제1대대가 제주도의 경비 임무와 잔존공비 토벌작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12월 28일, 제주항에 도착한 해병대사령부는 다음날 육군 독립제1유격대대로부터 제주도 경비 임무를 인수하였다.<sup>31)</sup>

해병대사령부의 임무는 제주도내 잔여공비를 소탕하고 민심을 수습하여 피폐된 도민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반 대민활동이었으며, 아울러 자체교육을 통한 부대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해병대사령부는 제주도에 도착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배치를 하였다.

제주읍에는 해병대사령부와 제주읍부대(부대장:김성은 중령)를 두었으

3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71년, 71쪽.

31) 해병대사령부작전교육국, 해병전투사(제1부), 1953년, 17-18쪽.

며, 주력을 모슬포로 이동시켜 모슬포부대를 편성하고 김동하 소령을 부대장으로 임명하였다.

모슬포부대(2개 대대)는 제1대대(2개 중대)를 북제주군에, 제2대대(3개 중대)를 남제주군에 각각 배치하였으며, 그 밖에 한림·서귀포·성산포에 정보대와 헌병대를 주둔시켰다.

해병대 사령부 편성표는 다음과 같다.<sup>32)</sup>

## (2) 작전경과

### 1) 민심 수습작전

해병대사령부는 공비소탕작전에 앞서 도민의 민심수습이 선결과업인 것으로 판단하고 주민 계몽운동을 실시하는 한편, 엄정한 군기를 확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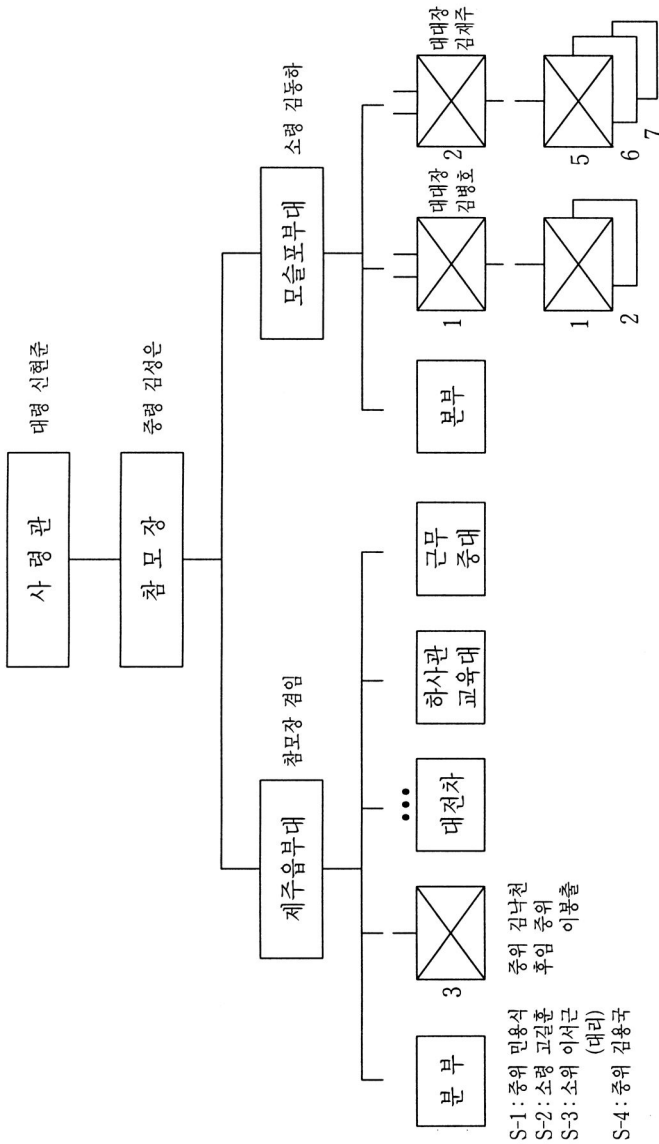
민심수습을 위하여 해병대는 도내에 산재한 무의촌에 해병 의무대를 파견하여 순회진료를 실시하였고, 허물어진 도로 및 하수도 보수 같은 시설 복구공사를 실시하여 도민을 돕는가 하면, 농번기에는 대민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1950년 1월 25일부터 약 1개월 동안에는 주민계몽을 위해 해군본부의 지원 아래 계몽강연도 실시하였다.

해병대는 이와 같은 대민지원 활동과 계몽을 꾸준히 끈기 있게 펼친 결과 제주도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되어, 점차로 이들이 품고 있던 군에 대한 원한과 공포심이 해소되어 갔다.<sup>33)</sup>

32) 해병대사령부작전교육국, 해병전투사(제1부), 1953년, 17쪽. 한국전쟁사(구판1권), 1967년, 655쪽.

33) 해병대사령부, 해병전투사(1부), 1953년, 18-19쪽.

해방대사령부 편성표



## 2) 공비소탕작전

해병대사령관은 민심을 수습하고 도내 공비의 발호 실태를 파악한 다음,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 한라산지구의 공비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해병대는 공비토벌작전을 2개 대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제923부대가 부르던 제1대는 정보참모 고길훈 소령이 지휘하는 정보대로서, 그 예하에 분대로 구성된 유격대(대장: 서정남 소위)를 편성하여 한라산 서쪽 오백장군과 1394고지 부근의 세오름·돌오름을 중심으로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김동하 소령이 지휘하는 제2대(제945부대)는 한라산 북서쪽의 제주·애월·한림 지구와 남부의 안덕·중문·서귀포·남원 지구를 담당하였다.<sup>34)</sup>

**제1대의 상황:** 1950년 2월 5일, 제1대는 중문리 북서쪽 16km 지점의 돌오름, 무스개(자연동굴) 및 950고지에서 공비들과 최초로 교전하게 되었다. 제1대는 다음날(2. 6)까지 계속된 이 교전에서 공비들을 포위하여, 탈출하려고 시도하는 공비 8명을 사살하고 8명을 생포하였다.

3월 10일 15:00, 작전부대는 중문리 부근의 881고지 중턱에 있는 공비의 야전병원을 찾아내어 병원장 김포길과 남로당 제주도지구 서기장 강철을 사살하고 다수의 문서를 노획하였다.

한라산 서쪽 한대약 부근에서 활동하던 유격대(분대장: 김익태 중사)는 공비 40명과 조우하자 지체없이 이들에게 집중사격을 가하였다. 그러나, 공비들은 유격대 병력이 소수인 것을 알아차리고 역으로 포위하면서 사격을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유격대는 실탄이 떨어져 백병전을 치러야만 하였으나, 때마침 부근을 수색하던 다른 유격대(분대장: 전두대 상사)가 급거 이들을 지원하여 공비들을 격퇴하였다.

이 작전에서 유격대는 공비 7명을 사살하였다.<sup>35)</sup>

34) 해병대사령부, 해병전투사(1부), 1953년, 20-21쪽. 한국전쟁사(1권) 해방과 건군, 1967년, 260-261쪽.

KCS I

---

35) 해병대사령부, 해병전투사(1부), 1953년, 22-24쪽. 대비정규전사, 1988년, 74쪽.

**제2대의 상황:** 3월 15일 제2대의 제6중대는 1394고지 남서쪽 2km 지점에 있는 공비의 아지트에서 공비 1명을 사살하였으며, 17일에는 본부중대가 오백장군 일대에서 공비 2명을 사살하였다. 그리고, 22일에는 제6중대가 돌오름 남쪽에서 약 50명의 공비와 다시 조우하여 3시간 동안의 치열한 교전 끝에 이들을 격퇴시켰다.

5월 20일, 제2대는 지휘본부를 한라산 남쪽 쌀오름으로 이동시키고 공비 은거지역에 대한 탐색을 계속하였다.

이 작전은 6월 25일 북한군의 전면남침으로 인하여 6월 말에 종료되었다.<sup>36)</sup>

### (3) 작전 후의 상황

북한군이 전면남침을 개시하자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해병대사령관은 제주도지구 계엄사령관에 임명되었다.

7월 15일 해병대사령부는 계속 남하하는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하기 위하여 1개 대대(대대장: 고길훈 소령)를 군산·장항 지구에 투입하였다. 그 후 해병대는 제주도에서 신병 3,000여 명을 훈련시켜 연대로 증편한 다음, 9월 6일 부산으로 이동하여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하였다.<sup>37)</sup>

36) 해병대사령부, 해병전투사(1부), 1953년, 21-22쪽. 한국전쟁사(1권) 해방과 건군, 1967년, 662쪽.

37) 해병대사령부, 해병전투사(1부), 1953년, 24쪽.

## 8. 결 론

○ 군의 제주4·3 공산폭동진압작전 부대, 기간, 지휘관, 작전개념(요약)

작전부대	지휘관	작전기간	비 고
제9연대	김익렬대령	'48. 4. 23 -5. 15	※ 초기작전: 경찰(단독) ('48. 4. 3-4. 22) • '48. 4. 23부터 작전
제11연대	박진경대령 (6. 18, 순직) 최경록대령	'48. 5. 15 -7. 23	• 작전개념 1단계: 선무작전 2단계: 소탕작전 • 군내 좌익세포에 의한 작전계획 누 설로 큰 교전없었음(문상길중대장, 오일균대대장, 이운락 S-2)
제9연대 및 제주도 경비 사령부 작전	김상겸대령 (10. 11-20) 송요찬대령	'48. 7. 24 -12.29	• 작전개념: 선 선무공작 후 공비소탕 • 정부수립, 포고령 및 계엄령선포 • 공비들의 적극공세(10. 1, 소련혁명 기념일 이후)에 대응 강력한 토벌 작전
제2연대 및 제주도지구 전투사령부 작전	함병선대령 (2연대) 유재홍대령 (전투사)	'48. 12. 29 -'49. 2. 28 '49. 3. 2 -5. 15	• 작전개념: 선무공작, 주민보호, 소 탕작전 • 공비들의 주둔지습격 및 적극공세 로 강력한 토벌작전으로 공비섬멸 • 국군전사: 119명 • 적 피 해: 주력섬멸
독립제1대대 작전	김용주소령	'49. 8. 13 -12. 28	• 잔비소탕(중대규모) ※ 소강상태
해병대사령부 작전	신현준대령	'48. 12. 28 -'50. 6. 24	• 잔비소탕 • 1단계: 민심수습, 2단계: 소탕작전
해병(1개중대) 및 경찰작전		'51. 1 -3. 31	• 제주도 제1훈련소 설치(병력 다수 주둔)
무지개부대작전 (육군 본부 직할)	박창압소령	'53. 2. 3 -5. 1	• 대비정규전 특수작전부대, 공비토벌 작전 종결

- 제주4·3사건은 김달삼을 비롯한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체가 된 무장폭동이다. 특히 최근 공개된 북한군 노획문서 「정세순보」, 「김달삼의 남로당해주인민대표자대회 연설문」 등은 제주4·3사건이 5·10총선반대를 위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폭동임이 극명한 사실로 드러났다. 이러한 무장폭동을 국가차원에서 초기에는 치안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이 진압에 나섰고 경찰단독으로 진압이 어려워지자 군이 진압작전에 동원되었다. 군의 진압작전개념은 처음부터 주민의 희생을 감소하기 위하여 작전개념을 선 선무공작, 후 공비소탕작전의 원칙하에 제1단계로 산에 올라가 있는 주민들을 공비와 분리시켜 하산시켰고 공비도 귀순을 종용하여 하산한 인원에 대하여서는 사상교육을 시키고 귀향조치를 하여 주었으며 제2단계는 끝까지 저항하는 무장공비에 대해서는 강력한 소탕작전으로 이들을 섬멸시키는 것이었다. 군은 진압작전간 군내부의 남로당세포들에 의해 작전계획이 사전 누설되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며 이들 군내부 남로당 지하세력에 의해 연대장까지 암살 당하는 어려운 사정에서 작전을 전개하게 되었다.
- 1998년 7월 하순부터 송요찬 중령의 재편된 제9연대와 그후 진압작전에 참전한 제2연대의 작전에 의해 공비들은 대부분 귀순하였거나 소멸되었다. 작전기간 중 제9연대(재편)의 중산간지역 주민에 대한 소개령은 공비의 보급원과 정보원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공비와 연관이 있는 포고령 불응자가 공비와 합세하기 위하여 한라산으로 올라갔다가 피해를 입은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 또한 1949년 1월부터 작전을 실시한 제2연대의 경우 이덕구의 소위 「인민해방군」이 국군 대대규모의 주둔지를 습격할 정도의 강력하고 위협적인 선제 기습작전은 당시 작전이 피·아간에 얼마나 치열했던가를 알려준다. 다행히도 제2연대 토벌작전시 제주도 주요인사와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민·관·군으로 편성된 선무공작대의 활동은 많은 주민을 하산

시키고 폭도들도 귀순시켜 작전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많은 공을 세웠다.

- 제주4·3사건 폭동진압작전에서 군·경피해자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지금까지 밝혀진 전사자가 경찰 122명, 군인 186명, 계 308명으로 잠정 확인되었으나 실제 희생자는 훨씬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가 국가의 명을 받고 공산폭동을 진압하다가 공비들에 의해 희생된 인원이다.
- 그러나 일부계층에서는 군·경토벌부대에 의하여 희생되었다고 하는 주민신고를 관련자의 검증도 없이 확정하려고 하는 행위는 잘못된 조치이다. 공비가 군·경 복장을 착용하는 경우가 많고 노획한 군·경 복장을 착용하고 의도적으로 살상을 할 수도 있으며, 부락에 침입 군·경에 협조한 주민을 반동분자로 몰아 학살하거나 납치해 간 사례도 있었기 때문이다.
- 역사의 진실은 살아있다. 이를 왜곡시켜서는 안된다. 국가의 명을 받아 공산폭동을 진압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한 군·경을 가해자로 전락시키려 한다면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모독한 처사로 사려된다.

K C I

## 부 록

### 4·3사건당시 남로당 중앙위원회의 격려서한과 제주도당의 답신

<별지 1> 제주도 인민대중에게 보내는 남로당 중앙위원회의 서한(1948. 6)

이 서한에는 남로당 중앙위원회가 제주도당에게 제주4·3폭동사건을 일으켜 UN의 결정에 따른 대한민국제헌의원선출을 위한 5·10총선거를 폭력투쟁으로 무효화시킨데 대한 감사의 격려문이며 제주도당에서 1947년에 발생한 3·1절 반미시위사건과 이에 따른 3·10총파업을 단행한데 대한 감사의 편지다. 남로당 중앙위는 이 서한에서 제주도당이 주체가 되어 주민들에게 무장투쟁을 감언이설로 선전선동하여 끌어들이고 제주도 공산세력들의 계속적인 희생에 강요하고 있다. 이 서한을 분석할 때 남로당 중앙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에는 그들의 설 자리를 잃게 됨으로 남한의 남로당 각 도당에게 5·10총선 반대투쟁을 위한 공산무력폭동을 지령하였으며, 이 지령을 가장 충실하게, 가장 조직적으로, 가장 잔인하게 이행한 곳이 제주도당이며 제주도를 유혈의 바다로 만든 원인이 되었다.

필자 주

#### 제주도 인민대중에게 들임

◆ 미제의 분할침략으로부터 조국의 민족주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에게 영광을 드리자.

남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서한

친애하는 제주도 인민 대중들이여! 조국 해방의 전사들이여! 우리 남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조국의 통일과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미제국주의 침략자 및 그 주구들의 음모하는 단선 단정을 쳐부시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항쟁하는 여러분에게 무한한 감사와 존경과 끝없는 형제적 인사를 들입니다.

여러분은 인민의 생명을 파괴 목숨과 같이 역이고 자유와 인권을 신썩같이 짓밟는 악독한 친일 반동 경찰과 반동 테로단의 무리한 검속, 고문, 투옥, 테로, 학살에 참다 참지 못하여 생명과 자유를 방어하기 위하여 일어난 것이며, 미제국주의 침략자와 그 주구들의 음모하는 망국 멸족의 단선 단정을 분쇄하여야, 미제의 분할 침략으로부터 조국의 민족 주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쟁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싸움은 참으로 정의의 싸움이며 구국의 성스러운 항쟁입니다.

여러분은 테로와 폭압과 대량 해고를 반대하기 위하여 일어난 작년 삼월 총파업에 있어서도 솔선 쟁기하여 위대한 단결력을 보이며 이 거대한 총파업의 전개에 불을 부쳐 주었습니다. 이번 단선 단정 반대 투쟁에 있어서도 참으로 여러분은 모범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문자 그대로 원수놈들의 단선을 가루가 되도록 쳐부셨습니다.

그리하여 철면피한 미제와 국내의 주구들까지도 제주도 투표의 무효를 선언하지 아니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성과를 거두기 위한 여러분의 투쟁은 참으로 희생에 차인 피투성이의 싸움이었습니다. 젊은 인민 영웅들은 육탄으로서 원한의 투표소를 쳐부수고 투표함을 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뱀보다 싫어하는 반동 경찰과 악질 반동 분자들을 철권으로 응징하였습니다. 전 인민들은 한숨도 못되는 친일파인 미국 사냥개 이외에는 노동자이건 농민이건 어민이건 학생, 지식, 문화인이건 소시민이건 또한 관공리이건 할 것 없이 모다 한 사람과 같이 일어나서 투표를 보이콧하고 파업과 태업을 단행하였습니다. 젊은 인민 자위대들은 한라산 골속에서 갖은 고난을 극복 돌파하며

\* 이 글은 1948년 6월 28일자 남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노력인민 제96호에 실린 원문 내용으로 남로당 중앙당에서 4·3폭동을 일으킨 남로당 제주도당 및 폭도들의 투쟁을 가열시키기 위한 서한이다(고재우, 상계서, 1998, pp. 53~36 자료에서 재인용).

원수의 총화를 무릎 쓰고 존귀한 생명을 바치며 피의 항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도의 인민들은 인민 자위대를 위하여 식량을 운반 공급하며, 어린 여학생들은 인민 영웅들의 상처를 고쳐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전도 인민이 거족적으로 위대한 구국 항쟁에 총궐기하여 강철같은 단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로 여러분의 싸움이야말로 조국 해방 투쟁사를 길이 빛낼 것입니다.

친애하는 제주도 형제 자매들이여! 그러나 적들은 단정 조작의 악랄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5·10 단선이 남북조선 인민의 거대한 투쟁에 의하여 중대한 타격과 파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성공'을 기만 자랑하고, 이 소위 범죄적 강제 사기 선거에서 임명된 친일파 매국노들을 꺾어 모와 외람히도 국회를 참칭하여 남조선 단독 위조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소위 "국회의장"인 국적 이승만이가 식사(式辭)중에서 미군의 영구 주둔과 고문단 초청을 애원한 것은 이 단독위조 "국회"의 성격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미국인과 그 주구들은 이에 범죄적 위조 국회를 바탕으로 이승만, 김성수 등 친일파 매국노들이 독재하는 허수아비 단정을 만들라고 미치광이같이 날뛰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어코 이 단정을 쳐부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에는 구국, 순국의 정신과 애국적 영웅주의가 일찍이 보지 못할 정도로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서울 광희동 2가 투표소를 습격하여 원수의 무기를 빼서 반동 경찰을 응징하고 투표소를 분쇄한 다음에, 반동 경찰과 테러단에 포위되어 흉탄에 쓰러진 김해산, 강홍열 열사를 비롯한 수많은 인민 영웅들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민 영웅들의 뒤를 따라 반듯이 단정을 파탄시켜야 하겠습니다. 만일에 원수놈들의 음모대로 단정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일제 시대 이상의 억압과 착취를 당할 것이며, 오늘 하곡 수집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인민의 전 식량은 약탈당할 것이며, 전력 문제에서 경험하듯이 미국인의 의식적 파괴 정책에 의하여 남조선 산업 경제는 총 파괴될 것이며 암흑화될 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미국놈의 노예가 될 것이며 아사와 유혈 폭압의 도탄에 신음할 것입니다. 우리의 국토는 양단되고 민족은 분열되어 남조선은 미국의 식민지와 군사 기지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단정을 쳐부수지 않으면 우리 자손 만대에 불

행의 씨를 뿌리게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제주도 형제 자매들이여! 조국해방의 전사들이여!

당신들은 오늘 위대한 조국 해방의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구국의 뜨거운 피가 끓고 있으며, 여러분의 팔뚝은 영웅적 항쟁의 공격 정신에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단선 분쇄에 발휘하신 그 고귀한 순국, 구국 정신과 애국적 영웅주의를 단정 분쇄 투쟁으로 발휘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피에 굶주린 원수들은 여러분에게 야수적 총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토벌적 학살을 감행하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조국 주권 방어의 초소(哨所)를 반듯이 지킬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남북 조선의 전인민은 여러분에게 격려와 지지를 보낼 뿐 아니라, 여러분의 뒤를 떨어 전국적 구국 투쟁을 더욱 광범히, 더욱 높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친애하는 제주도 동포들이여! 우리의 싸움은 정의롭고, 우리의 남북의 민주 역량은 위대하며, 전세계 민주 진영은 우리를 열렬히 지지, 성원하고 있습니다. 친일파, 민족 반역자는 인민에게 고립되어 한줌도 못되고, 그들에게 의거해야 조국을 침략하라는 미제국주의는 닥쳐오는 대공황을 앞두고 화산(火山) 위에 안즌 것 같으며 역사적 몰락의 운명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듯이 승리할 것이며 또 승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승리를 확신하고 돌진합시다! 우리 남조선 노동당 중앙 위원회는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용감하게 싸울 것입니다.

1. 위대한 구국 항쟁에 돌진하는 제주도 인민에게 승리와 영광을 드리자!
2. 단선 분쇄 투쟁에 육탄 돌격을 감행한 인민 영웅들의 뒤를 따르자!
3. 망국 멸족의 허수아비 단정을 철저히 처부수자!
4. 미제의 침략으로부터 조국 주권 방어를 위한 구국 인민항쟁 만세!
5. 통일적 민주주의 조선 완전 자주 독립 만세!

1948년 6월

남조선 노동당 중앙 위원회

<별지 2> 남로당 제주도위원회의 메시지

이 서한은 남로당 제주도 위원회가 중앙위원회의 격려서한(1948. 6)에 대한 감사의 답신으로 작성된 것이다. 격려서한에 고무된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4·3사건 당시 어린이 부녀자, 소년소녀까지 동원하여 총알을 획득하도록 하였고 위문품을 만들게 하고 투표함을 부수는 등 남로당 중앙위원회 지령을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보고하였으며, 「남로당중앙위원회」 만세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쳤다.

이로써 제주4·3사건은 남로당중앙위원회와 소련의 사주에 의해 세워진 북한공산정권을 받들고 이들의 지령에 의해 일으킨 공산폭동임을 명확관하에게 스스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필자 주(註)

남조선 노동당 제주도위원회 멧세-지

8백만 조적 대중을 비롯하여 모든 애국적 역량을 통합 집결한 철(鐵)의 토대 위에 百萬 정예로 묶어진 인민적 민주주의의 초소(哨所)이며, 민족주권의 보루(堡壘)이며, 조국 방어의 성새(城塞)인 유일한 애국의 당, 우리당 중앙 위원회에 대하여 제주도 위원회는 무한한 존경과 감사와 열렬한 동지적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지들! 원수들의 집중적으로 퍼붓는 총 포화 속을 조국의 민족주권 방어의 깃발을 거머쥐고 영웅적 인민들과 더불어 학살의 지뢰원을 진격하는 우리들의 대열에 백난을 돌파하여 전달된 멧세-지를 접수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이 고귀한 멧세-지를 방방곡곡 모든 항쟁 대열에 전달하였으며, 또한 이미 원수들의 총칼에 쓰러진 존귀한 동지들과 인민 영웅들의 무덤에 이 영광의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조국 방어의 모든 초소, 모든 대열에 일어나

\* 「노력인민」 113호(1948. 11. 7)에 실린 글로써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남로당 중앙당에 7월에 보낸 서한이다(고재우, 상계서, 1998, pp.57~58에서 재인용).

는 환호! 충천하는 사기(士氣)! 그 북받쳐 오르는 감격! 그 열광적 광경을 무엇으로써 표현하겠습니까. 실로 百萬의 원군보다도 더욱 힘차게 우리들의 사기를 고무시켜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동지들! 생각컨대 4·3 쫓겨 전야의 제주도의 전향은 참으로 가열했던 것입니다. 미 제국주의와 그 국내의 주구들의 기도하는 5·10 매국 단선을 100% 수행하기 위한 흥계는 그의 야수적 학살 정책을 지도층으로부터 전 인민의 위에 확대시켜 조직적 인민 교살 정책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서북 계열로 개편된 경찰진과 대청(大靑), 민족청년, 서북청년 등 테러단을 총동원한 기동적 학살 정책은 인민을 질식시키고 전도(全島)는 이르는 곳,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고 마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국의 민족 주권 방어의 초소를 문자 그대로 사수하려는 우리들의 불굴의 투지는, 상급 당부의 옳은 지도 밑에 인민의 요구하고 지향하는 바에 의하여 총칼을 망국 단선을 강요하려는 데 대하여, 이를 분쇄하는 효과적 성안을 창발하였으며 급박한 정세하에 행동 태세의 완료를 보았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지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4월 3일 오전 2시 이날 이 시각을 피끓은 영웅적 동지들은 얼마나 고대했던 것입니다. 죽음을 재촉 받는 인민을 수호하기 위하여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는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피에 굶주린 원수들과의 결전! 끌어 오르는 흥분을 자제하면서 암흑을 뚫어 진진 대기, 돌연 우뢰와 같은 폭음과 함께 원수들에게 육박하는 영웅들! 천지를 진동하는 개가(凱歌)! 이래서 원수들의 포승에 목매어 악몽에 시달리는 30만 도민의 잠꼬대를 깨트리고 영웅적 룩푸 부대의 투쟁은 순식간에 전인민적 항쟁 태세로 전화하고 말았습니다. 항쟁 대열에서 누가 지도자이며, 누가 대중이며, 누가 인민이며, 누가 군대인가는 구별하기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죽은 아들의 원수를 갚겠다고 종군하는 70노인, 원수들의 총알을 털어오는 어린이들의 창발적 활동, 위문품을 만드는 부녀자들의 열성, 대중의 면전에서 아지 프로하는 소년 소녀들, 단신으로 3명의 서청원을 혁대로 때려 「늪」여 이를 포로(捕虜)하고 투표함을 탈취한 인민 영웅, 물결쳐 들어오는 국경 장병에게 격문을 배부하는 소학생과 부녀자들의 대담한 투쟁, 단 13명의 소부대로 60명의 기동 경관대를 백주에 요격(邀擊)하여 그중 14명을 사살하며 나머지를 교란시킨 무적 요격대, 범람하는 뼈라의 홍수, 노도와 같은 시위 대중, 과연

장엄한 구국 인민 행진곡이었습니다. 혁명화한 인민의 위력은 침략자의 사냥 개들을 그의 토치카 속에 여지없이 침복시키고 수천의 국경(國警)을 제압하여 망국 멸족 단선을 분쇄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동지들! 제주도의 항쟁이 “조선 인민의 모범적 항쟁이며” “우리 조선 민족의 영예와 불굴의 애국심을 전세계에 선양(宣揚)하였으며”, 따라서 “조선 인민은 제국주의적 폭압과 학살로도 멸할 수 없는 것을 천하에 공시(公示)” 하는 역할을 놓았다고 평가하여 주신 것은 과분의 영예로 생각함과 동시에, 존귀한 지하의 영웅들과 항쟁하는 전사들의 의사를 대표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더욱이 우리들이 오늘 전개하고 있는 항쟁이 ‘조국 해방 투쟁사상 불멸의 금자탑’을 이룰 것이라는 격려의 말씀은 우리들의 항쟁 대열에 주어진 최대, 최고의 영예이며, 이에 의해서 전 항쟁 대열의 전투 의식은 더욱 앙양되었으며 심장에 끓어오르는 피와 열화와 같은 공격 정신은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가열한 시련의 낙관’을 완전히 극복 돌파하고 말 것입니다. 이미 월여에 공하여 1천여명의 기동경관대와 5천 여명의 국경에 의한 누차의 포위 토벌 전멸 작전도 완전히 허실케 만들고 말았으며, 원수들의 허위 모략 선전에도 불구하고 인민 영웅들은 의연히 견재하고 있으며 원수들의 퍼붓는 수만 수천만의 탄환 속에서 시련받는 영웅적 30만 도민이 있으며, 더욱이 3개월의 시련을 통하여 연마된 전투 기술은 더욱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영웅적 인민들과 함께 어떠한 학살적 폭압에도 굴치 않고 어떠한 달콤한 회유에도 속음이 없이 조국의 민족 주권 방어의 깃발을 튼튼히 거머쥐고 “제주도 인민의 존귀한 구국의 피를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라”는 중앙 위원회의 엄숙한 선언에 대하여, 우리들은 ‘조국 해방 투쟁사상에 불멸의 금자탑’을 이루는 영예를 실지에 관철할 것을 기표로 하여 망국 멸족의 단정 분쇄의 가열한 초소를 죽음으로써 지킬 것이며, 통일 독립을 우리의 손으로 전취할 때까지 과감히 투쟁할 것을 확언하고 맹세합니다.

1. 남조선 노동당 중앙 위원회 만세!
2.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만세!

1948년 7월

남조선 노동당 제주도 위원회